

영농철 잇단 농기계 사고·화재 ‘악순환’

구례서 콤바인에 깔려 숨지고 나주·무안선 곡물건조기 화재 전남 매년 안전사고 400여건 지난해 341명 부상·17명 사망 고령 농업인 안전교육 시급

지난 15일 오후 4시 40분께 구례군 산동면의 한 논에서 콤바인에 깔려 숨진 A(53)씨가 콤바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족들에 의해 발견된 A씨는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구례경찰청에 A씨가 흉과 베가 영진 눈에 콤바인이 빠져 전전하지 못하자 시동을 켜둔 채 내려 이를 제거하던 중 콤바인에 깔린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께엔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한 농가의 곡물 건조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벼 1300kg을 태웠다. 앞서 지난 4일에도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한 농가 곡물건조기에서 불이나 5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전남지역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와 화재 등이 잇따라 발생,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조작미숙 등이 농기계 사고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남소방본부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농기계안전사고 건수는 2016년 381건, 2017년 450건, 2018년 341건으로 매년 4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9월 기준 240건이 발생했다. 사상자도 2016년 부상 381명·사망 19명, 2017년

부상 450명·사망 8명, 2018년 부상 341명·사망 17명 등에 이른다.

올해에도 농기계 안전사고로 전남에서만 지난 9월 기준 88명이 부상을 입고 2명이 숨졌다.

지난해 발생한 농기계 안전사고 341건을 분석해 보면 경운기가 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앙기 등 기타 농기구 102건, 트랙터 18건, 콤바인 3건 등의 순이었다.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는 9·10월에 집중되고 있으며, 사망 등 인명사고는 고령의 농업인들이 홀로 농기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농기계 업체 관계자는 “경사진 곳이나 협소한 길 등 작업조건이 나쁜 곳에서 일을 할 경우 진동과 소음 등으로 집중력이 저하돼 사고로 이어진다”면서 “특히 전남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고령의 농부가 직접 농기계를 사용하

는 과정에서 기계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자치단체가 직접 나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법 등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자치단체들이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센터’를 중심으로, 농기계 임대시 조작법과 주의법 등을 상세히 교육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병수 전남도 농업기술원 농기계교육팀장은 “현재 농기계를 운전면허제도도 없지만, 내년부터 농기계에도 운전면허 기능사 자격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는 농기계 임대시 내실 있는 안전교육과 함께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고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창 해안가서 멧돼지 사체... 돼지열병 검사

고창군 해안가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방역 당국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16일 고창군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해안가에서 한 행인이 야생 멧돼지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과 군 관계자는 해안가 일대를 통제하고 사체를 수거했다. 방역 당국은 멧돼지가 바다에 떠다니다가 해안가에 밀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멧돼지 폐사체의 시료를 국립

합천경과확원으로 보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이 있는지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17일께 나올 전망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멧돼지가 발견된 장소 주변을 소독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되면 방역대를 설정해 추가 방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이날 야생멧돼지 사체 5구가 발견됐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재소자 영치금 3억 빼돌려 도박 교도관 징역 2년6개월

수용자들의 영치금을 3년간 빼돌려 인턴 도박을 한 교도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임효미)은 업무상횡령,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도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목포교도소에서 근무하며 영치금 3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735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설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음식이나 생활품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지인이 넣어주는 돈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영치금 현금 접수를 폐지하고 가상 계좌로만 받기로 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대낮 아파트 놀이터서 음란행위 한 20대 검거

광주광산경찰청은 16일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를 공인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25)씨는 지난 15일 낮 12시께 광주시 광산구 수안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장소 인근에는 어린 아집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지 내 CC-TV를 분석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읍 주택 화재... 80대 숨져

16일 오후 2시 10분께 전북 정읍시 이평면 한 주택과 주변에서 불이 나 혼자 사는 80대 노인이 숨졌다.

집에서 불꽃과 연기가 보인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화재 진압 중 집 앞에 쓰러져 숨진 A(85)씨를 발견했다. 시신은 불에 타 훼손 정도가 심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불은 방 내부와 가구 등을 태우고, 25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5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가 농작물을 태우던 중 불이 강풍으로 번지는 바람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읍=박기성 기자 parkks@

“보고 싶다”며 여직원 상습 스토킹한 유부남 상사

“보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는 등 동료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40대 코레일 광주본부 직원에 검찰에 송치되는 등 판시할.

○...16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수개월 동안 20대 동료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이번 사건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레일에 다니는 딸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유부남 과장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는데, 코레일 본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기계 화재 주범은 ‘취’

전선 갈아 접촉 불량 유발 무안소방서 트랙터 화재 분석

취로 인해 농기계 화재가 발생해 농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무안소방서는 “지난달 25일 세위동 트랙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설치류(취)가 이빨로 전선을 갈아 불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무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무안 몽탄면에서 유압장비 정비와 마치고 세위동 트랙터에서 불이 나 1500만원의 피해가 났다. 불은 운전석 계기판과 엔진 부위에서 발생했다.

조사결과, 트랙터 계기판 안쪽에서 동지와 함께 취가 발견됐고 끊긴 전기 배선에 이빨로 갈아 먹은 흔적이 있었다. 소방서는 전기배선 접촉불량으로 불꽃이 일어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무안소방서 관계자는 “설치류는 계속 자라는 이빨을 일정 길이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선이 나무 등을 갈는 습성이 있다”며 “벼 수확 후 설치류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볍씨와 볍씨를 농기계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야만 이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새내기 공무원 디딤돌 캠프 16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내기 공무원 디딤돌 캠프'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선후배 공무원들이 게임을 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노인 일자리사업 도중 사망사고 잇따라

광주·전남 5년간 3명 숨져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사업 도중 사망한 노인이 4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

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노인일자리 사업 도중 46명이 숨지고 4425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2명이었던 사망자는 올해 6월 기준 14명이 숨지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사망한 14명의 사망원인을 분석해

보면 교통사고 8명, 심정지 4명, 뇌출혈과 심근경색이 각각 1명이었다. 광주·전남에서도 올해 각각 1명과 2명씩 사망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전국기준 61만 746명으로 집계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치 좋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성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근린시설** 전남 목포시 명륜동 토지 1131㎡(342.128평) 건물 : 7617.71㎡(2304.367평) 지하3층 지상8층 감정가 : 54억6천5백만원 최저가 : (70%) 38억2천5백5십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군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지상2층 감정가 :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 (70%) 3억2천3백5십만원
- 다가구(원룸)** 전남 화순군 동면 백용리 토지 : 1582㎡(478.6평) 건물 : 298.92㎡(90.4평) 창고, 공장, 근린시설 적합 감정가 : 3억6천1백만원 최저가 : (56%) 2억 2백2십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 지하층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70%) 4억7천4백만원
- 주택** 광주 남구 백운동 토지 : 225.5㎡(68.214평) 건물 : 243.77㎡(73.74평) 감정가 : 3억1백3십만원 최저가 : (70%) 2억1천9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금호동 쌍용에가 55평형 감정가 : 8억3천5백만원 최저가 : (70%) 5억8천4백5십만원
- 아파트** 광주 서구 풍암동 에스케이이유 56평형 감정가 : 8억2천만원 최저가 : (70%) 5억7천4백만원
- 오피스텔** 광주 서구 치평동 로잔티오파크 78평형 감정가 : 4억4천1백만원 최저가 : (70%) 3억 8백7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